

다산포럼

농사가 내게 가르쳐 주는 것



김정남 언론인

“남새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땅을 반반하게 고르고 이랑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흙을 가늘게 부수고 깊게 갈아 분가투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다. 씨는 항상 고르게 뿌려야 하며 모종은 아주 성기게 해야 한다. 아욱 한 이랑, 배추 한 이랑, 무 한 이랑씩 심어 두고 가지나 고추 등속도 따로따로 구별하여 심어 놓고, 마늘이나 파 심는 일에도 힘을 일이다. 미나리도 심을 만한 채소다. 또 한여름 농사로는 잡외만 한 것도 없느니라.”

다산(山)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새밭 가꾸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 편지에서 다산은 국화 한 이랑은 가난한 선비의 몇 달 식량이 될 수 있다면서 이밖에도 생지황, 끼루트, 천궁 같은 것이 나 쪽나무나 쪽두서니 등에도 마음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보면 다산은 부업으로서의 농사, 또는 근교 농업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말 그대로

실학자(實學者)였다. 오늘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주변, 곧 다산의 고향 언저리가 서울 시민들에게 신선한 유기농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단지가 된 것 역시 결코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다산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낳고 자란 탓인지 나에게도 도시에 나와 살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 농사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울안에서 푸성귀를 가꾸는 텃밭 농사라도 짓고 싶어, 내 사는 곳 둘레의 아파트 부지나 공동체 등 자투리땅을 찾아내 작은 밭을 일구어 채마를 심곤 했다. 그때마다 땅 주인이나 관공서로부터 작물을 심지 말라는 핀잔과 독촉을 받고, 농사일들을 거두어야 했다. 그러다 몇 년 전, 야트막한 동네 뒷산 양지바른 산 중턱에 밭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있다. 다행히 땅 주인의 양해까지 얻어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쫓겨날 염려는 없는 셈이다.

새벽이면 일어나 음식을 쓰레기를 주머니에 담아 들고 등산 겸 농사일에 나선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농사짓는 주말농장 같은 것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새벽에 가서 땅을 파고 김을 매야 직성이 풀린다. 작물도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는다 하지 않는가. 밭에 가면 내 손이 가야 할 데는 얼마든지 있다. 오늘 이 일을 해야지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올 때도 있다.

이렇게 매일 같이 밭에 가 일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일상이 되었고, 그것은 또한 나의 유일한 건강법이기도 하다.

부추는 한번 심어 놓고 적당한 크기로 자랐을 때 베어 내고 그 위에 복합비료를 한 줌 뿌려 주면 금방 다시 올라온다. 호박익은 멀리 뺀어 나가는 그 순과 그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연한 잎을 따는 것이 좋다는 어릴 적 어머니의 가르침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 어내는 손이 많이 가는 한해살이 채소보다 한번 심어 놓으면 손이 덜 가도 되는 여러해살이 작물을 심으려고 성화다. 그래서 지금은 도라지와 더덕에, 밭 가장자리로는 옥수수과 아주까리, 우엉과 돼지감자를 돌려 심었다.

내 농사는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으로 시장에 내다 팔 정도는 못되지만, 작물에 따라 자급할 만큼은 되는 것이 적지 않다. 풋고추와 파, 부추 같은 것은 집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은 되고, 여름에 열무김치 몇 번은 담가 먹을 수 있으며, 잘하면 가을을 김장 때 총각김치나 동치미는 내가 사지는 것으로 충당할 때도 있다. 호박은 거름이 부족해 크고 잘생긴 늙은 호박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호박익은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만큼은 딸 수 있다. 밀짚을 허거나 농약은 치지 않지만, 복합비료는 1년에 1~2포 정도를 쓴다. 이만 하면 감히 무공해 유기농산물이라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농사에는 사람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순풍우조(順風雨調)해야 한다. 가뭄이 지속되면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비가 질척거리면 작물이 남아날 수가 없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농사짓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 까닭이다. 흉년이 들어도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내가 어설플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나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천지 안에 하나라는 사실이다. 보약은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채소도 보약을 좋아한다는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알았다. 원주 무위당 장일손의 말처럼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지만물은 막비사전주야(莫非待天主御)라, 천지만물이 가운데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농사를 통해 비로소 깨닫는다.

또한 농사는 나누어 먹기 위해 짓는다는 것도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따 온 채소는 오늘로 나누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농사도 저 혼자 먹으려고 짓지는 않는다. 미친가지로 쌀도 저 혼자 먹기 위해 농사 짓지는 않는다. 나누어 먹기 위해 짓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두만강 수해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14만 북한 이재민에게 남아도는 쌀을 보냈으면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 밥은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것이 농사이요, 천심이다.

정춘 특·특

일상에 변화를 준 7장의 사진



김재형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일중독”. 저를 따라다니던 단어입니다. 친한 후배들, 동기들을 만나면 언제나 “일 좀 그만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바빠서 죽겠다면서 왜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니까.

정작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도 왜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조금 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군대에서 보낸 2년의 시간이 아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학업과 일을 병행해 사회에 일찍 나가고 싶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외활동은 기본이며, 시간이 있을 때면 지역 축제 VJ활동을 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엔 정독실에 앉아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만큼 취업을 일찍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등교하고, 집에 들어서는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바쁜 날에는 7시에 일상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2학년, 23살이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던 가을, ‘영상 커뮤니티 케이션’ 수업은 저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주에 하나 씩 7장의 사진을 찍어오는 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을 찍고 싶었습니다. 사선이 머무르는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에 알람을 맞춰줍니다. 알람이 울릴 시간은 전날 밤에 무작위로 정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소화하다가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그 때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사진 찍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자제와 시선은 알람이 울렸을 때 그 자세, 그대로 고정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눈앞으로 가져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노출과 구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선’을 ‘사진’으로 옮기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과제 제출 날이 다가오고, 7장의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진을

나열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들이 똑같았습니다. 7장의 사진 중 5장이 정독실 책상 사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독실에서 바라본 창문이었으며, 남은 하나는 조모임 사진이더군요. 똑같은 7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의 생활 범위는 정독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의 일상은 그저 책상 앞에서만 멈춰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막 전역하고 빠르게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원하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때가 가까워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2학년인데, 남들보다 늦었으니까. 전력 질주해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잡아준 것이 7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일중독’에서 벗어났는지 물어본다면, 답은 ‘아니요’입니다. 여전히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중독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일은 무척이나 재미있습니다. 밤 세워 편집을 하더라도 완성된 작품을 보면 뿌듯합니다. 힘들어도 다시하고 싶은 일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영상에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비평문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저 무작정 정독실 안에서 책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출가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늦었습니다. 활자 속에 갇혀 지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 학과 선배들이 ‘놀아라’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놀아라’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알람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한데 놀라고 말하니 무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선배들의 말이 맞습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놀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중독되는 것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37년 우정 누가 이들 부부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주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로 숨진 이들의 타다 만 ‘슬픈 단체사진’이 나와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환하게 웃음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유족들은 목놓아 통곡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 관광버스 탑승자 대다수는 울산 한화케미칼의 퇴직자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79년 6월 입사 동기들로 퇴직 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우의를 다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족들은 불에 그을린 단체 사진을 휴대용 카메라로 담으면서 오열했다고 한다. 한평생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해 이제 막 여행을 즐기려던 차에 졸지에 사고를 당했으니 이보다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나.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이번 대형 참사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무리한 추월과 과속이 1차 원인으로 지적된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늘 반복되는데 안전불감증은 이번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번 참사를 일으킨 버스는 운전자가 이모(48) 씨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람에게 대형버스 운전권을 맡겼더니 기가 찰 따름이다. 정부가 뒤늦게 대형 교통사고 유발자와 무면허운전 경력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이다.

한편 이번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버스가 통유리로 돼 있어 창문을 깨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자동차는 화재 등에 대비해 차체 뒷면이나 왼쪽 면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으면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버스 제작업체들이 값비싼 비상구 설치 대신 창문 몇 개만 강화유리로 만들어 규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손질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자와 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제 차량 내 비상 탈출구 설치 의무화와 안전교육도 서둘러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 누리예산 지원 결정 잘한 일이다

올 한해 교육계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광주 누리예산 갈등이 타결됐다. 광주시가 학교용자부담금 300억 원과 지방교육세보전금 67억 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돈에다 자체 예산 175억 원 등을 더해 올해 광주 시내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예산 670억 원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누리예산은 지금까지 ‘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맴돌기만 하는 연속이었다.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반발하고 급기에 시청이 나서 예산을 대납해 왔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학부모들은 남은 3개월간 마음 편하게 어린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누리예산 타결을 두고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원칙과 실리를 잃고 배기투항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운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누리예산 갈등을 봉합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내년 누리예산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3개 교육감들이 내년에 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이상 이대로라면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시·도 교육청, 시·도 의회 등 관계기관이 누리예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기관이 정치 논리를 떠나 학부모 입장에서 누리예산 문제를 접근할 때 올해와 같은 파행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영화 ‘검은 바람’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서로를 보듬어 주고 포용하는 것이다. 생활방식이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따를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려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다.”(이리크 후세인 하싼 감독)

“영화 ‘블리드 포 디스’(Bleed for this)는 복싱 영화라기보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다. 전설적 복서 비니 파시엔자는 영화 ‘룩키’를 보고 챔피언이 되겠다고 얘기했다. 영화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다. 신작 영화들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이상을 다양하게 담고 있었다. 폐막적인 영화 ‘검은 바람’은 IS(무장조직 이슬람 국가)에 납치됐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 여인이 겪는 비극을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으로 포착했다. 또 ‘블리드 포 디스’는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은 복서가 다시 재기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 주는 영화다. 전

감동들이 만든 독립 영화에는 패기와 창의성이 넘쳤다.

부산 국제영화제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여러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상영에 따라 촉발된 부산의 조직위 간 갈등과 태풍 내습, ‘김영란 벨’ 시행 등 영향으로 관객이 지난해 대비 27% 줄었지만 두 달여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 앞으로 아시아 영화 허브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적 외풍에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나만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관건일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청년들이 꿈 실현하는 광주를 위해



박동혜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청춘과 청년, 이 두 단어는 한 단어로 생각될 만큼 소리와 뜻에서 매우 비슷하다. ‘청춘’은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연령대를 말하며, ‘청년’은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리없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과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가슴에 손을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민태원 선생의 ‘청춘예찬’의 시작 글이다. 그렇다. 청춘은 젊음, 패기, 꿈을 가지고 있기에 기성세대에게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세상은 그들의 삶에 대한 도전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시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 청춘들은 낮은 경

제성장률과 하락하는 고용성장계수,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과 미스매치 등으로 심각한 고용난을 겪고 있다. 일자리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을 모두 모아 놓은 시점에 있는 청년이 지금의 청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단군 이래 최상의 스펙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세대가 될 수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펼쳐왔지만 청년실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n포세대’, ‘헬조선’, ‘휴수저’ 등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에 지친 나머지 삶에 대한 희망과 도전보다는 사회에 대한 체념과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제 단순히 먹고사는 일자리 문제를 떠나서 국가 및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을 정책의 객체 내지는 수혜자라만 인식하여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을 국가 및 사회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서 지역 미래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의 동반자로 청년을 인식하고 있다. 아마도 민선 6기 들어 광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청년’일 것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을 담당하는 부서(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민·관 협치의 소통창구인 청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선 행보를 통해 청년들이 광주시정의 중심부로 들어왔다.

지난해에는 광주청년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물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참여활동 분야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청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 왔다. 지난 14일에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을 위한 주요 실천과제와 청년도시 광주를 위한 도시운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플랜인 ‘청년정책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심의·의결하여 광주시의 청년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켰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초 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제, 청년예비창업가 육성발굴 사업 등 22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1-1Plex 광주’

개관과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아이디어발굴 → 창업 → 사업화’ 등 청년창업 전주기를 지원이 가능한 물적·인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육성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은 현재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철강업 등의 전통 제조업과는 달리 성장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산업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국내 대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란 명언을 남겼다. 그 뜻은 사람은 태어나(Birth)서부터 죽을(Death)때까지 끊임없이 선택(Choice)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며,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의 궤적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이다.

바다, 우리시의 청년정책이 지역청년들의 선택을 기회(chance)로 만들어 자신의 삶을 멋지게 변화(change) 시키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지역의 아들·딸들을 더 포근히 보듬어 주리라 다짐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